

6·25전쟁기 대통령 트루먼의 전쟁지도: 제3차 세계대전의 방지¹⁾

김 남 균*

1. 머리말
2. 한국전쟁 개입결정
3. 참전 유엔군 지휘체계
4. 북진결정
5. 중국군의 개입과 확전문제
6. 맥아더 해임과 휴전결정
7. 맺음말

1. 머리말

6·25전쟁(이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즉각 개입을 결정했다. 직접적인 개입 목표는 남침한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퇴각시키고 한반도 상황을 다시 전쟁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었으나, 보다

* 평택대 미국학과 교수

1) 이 글은 2012년 5월 23일(수) 대한민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와 러시아연방 무력부 총참모대 군사학술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한-러 6·25전쟁 공동연구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던 글(6·25전쟁기 트루먼의 전쟁지도 : 제3차대전을 막아라!)을 수정 보완한 것임.

큰 목표는 또 다른 세계대전을 방지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군통수권자(Commander in Chief)의 권한을 행사한 결정이었다.²⁾

개입을 결정한 트루먼은 일방적인 미국의 단독개입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 국제연합(United Nations - 이하 유엔)을 통한 유엔군의 일부로 미군이 참전하는 개입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유엔군을 지휘하는 작전권한은 미국이 확보했다. 트루먼은 유엔군을 지휘할 야전사령관에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을 임명했다. 그는 일본에 주둔 중이던 연합군최고사령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이었다. 동시에 한국전쟁에 참전 중인 유엔군사령관직을 겸직하게 된 것이었다.

한국을 방어할 아무런 사전 작전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³⁾ 미군은 개전 초기에 낙동강까지 밀렸으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다. 뒤이어 유엔군은 북진 통일을 목표로 38선을 돌파했다. 이에 맞서 중국군이 개입하자, 맥아더는 중국 본토에 대한 폭격과 필요하면 핵무기의 사용까지 고려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반대했다. 한국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 맥아더와 트루먼의 갈등은 맥아더 해임으로 이어졌다. 결국 맥아더 해임 후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으로 끝이 났다.

한국전쟁 중 미국 군사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트루먼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과정에 내려졌던 핵심적 결정을

2) 대통령의 군통수권에 대하여 미국헌법 2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고 있다; “대통령은 연방의 육군과 해군의 통수권자이며, 또한 여러 주들의 민병대가 연방의 실제 군사활동을 위해 소집된 경우에는 소집된 민병대의 통수권자가 된다(The President shall b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Militia of the several States, when called into the actual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3)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72), p.69.

중심으로 대통령 트루먼의 군통수권자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첫째, 한국전쟁 개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둘째, 유엔군사령부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유엔군과 한국군 사이의 지휘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셋째, 북진정책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넷째, 왜 확전에 반대하였는가? 그리고 다섯째, 맥아더 해임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이미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이나⁴⁾ 대통령 트루먼의 역할을 중심으로 재구성해 봄으로써 대통령 트루먼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시도해 보기로 한다.

2. 한국전쟁 개입결정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국전쟁이 터지는 순간,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은 고향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Independence, Missouri)에 있었다. 미주리 시간으로 6월 24일 토요일 저녁 10시 조금 지나 휴식 중이던 트루먼에게 워싱턴으로부터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한 사람은 국무장관 딘 애치슨(Dean Acheson)이었다.⁵⁾ 전화를 받은 트루먼은 애치슨이 제안하는 바에 따라

4) 김남균, “미국 역사가들과 한국전쟁: 해석의 변증법”, 『미국사연구』 12집(2000), 137~159쪽.

5) 한국전쟁의 발발 소식은 주한미국대사 존 무초(John Muccio)에 의하여 처음 국무부에 보고되었는데, 그때 시간이 6월 24일 토요일 저녁 9시 26분이었다. 전문은 즉시 국무부 극동국공보담당관(Officer in Charge of Public Affairs in the Bureau of Far Eastern Affairs)인 브래들리 코너(W. Bradley Connors)와 국무장관 공보특별보좌관의 사무관(Executive Assistant to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State for Press Relations)인 폴 화이트(Paul Lincoln White)에게 전달되었는데, 당시 시간이 10시 15분이었다. 전문은 다시 10시 30분까지 육군부로 전달되었다. 전문이 백악관에 도달한 시간은 11시였는데, 국무부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인 딘 러스크(Dean Rusk)를 통하여 전달되었다. 백악관에 전달되기 전 전문내용은 국무장관 애치슨에게 전화로 보고되었다(애치슨은 워싱턴에서서 멀리 않은 메릴랜드 주 샌디 스프링(Sandy Spring)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쉬고 있었다). 그 후 애치슨이 트루먼에게

유엔안보리(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의 소집을 요청하라고 지시했다.⁶⁾

다음날 트루먼은 급히 워싱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애치슨에게 국방부와 국무부 관련 책임자들뿐 아니라 합동참모부(이하 합참) 책임자들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트루먼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북한의 도발은 자유진영의 의지를 떠보기 위한 소련의 책동이라는 점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일본의 만주 침략, 이태리의 에티오피아 침공 그리고 독일의 오스트리아 병합 사실들이 생각났다. 이런 도발들에 대해 연합국들이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고 트루먼은 믿고 있었다. 만약 북한의 도발을 용인한다면 결국 또 한번 세계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북한의 도발은 제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일 수 있다고 트루먼은 판단했다.⁷⁾

6월 25일 일요일 저녁 워싱턴으로 돌아온 트루먼은 블레어 하우스(Blair House)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비롯한 외교와 국방관계 책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다.⁸⁾ 참석자들은 모두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전화로 한국전쟁 발발 소식을 전한 시간은 11시 20분이었다.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7: *Korea*(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p.126. 위 시간은 워싱턴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이다. 전쟁이 발발한 한국과 워싱턴은 14시간, 그리고 한국과 인디펜던스는 13시간의 시차가 있었다.

6) Harry S. Truman, *Memoirs*, volume 2: *Years of Trial and Hope*(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and Company, 1956), p.332.

7) *ibid.*, p.333.

8)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았다: 국무장관 애치슨, 국방장관 루이스 존슨(Louis Johnson), 육군장관 프랭크 페이스(Frank Pace), 해군장관 프란시스 매튜(Francis Matthew), 공군장관 토마스 핀레터(Thomas Finletter), 합참의장 오마 브래들리(Omar Bradley), 육군 참모총장 로튼 콜린스(J. Lawton Collins), 공군참모총장 호이트 반덴버그(Hoyt Vandenberg), 해군작전사령관 포레스트 셔먼(Forest Sherman), 국무부 부장관 제임스 웹(James Webb), 국무부 차관보 딘 러스크(Dean Rusk), 국무부 부차관보 존 히커슨(John Hickerson), 국무부 본부대사 필립 제섭(Philip Jessup). *ibid.*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으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소련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으나 소련이 미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할 의도는 없다고 판단했다.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하여 맥아더는 한국으로 정찰대를 파견할 것, 7함대를 한국과 타이완 근해로 이동시킬 것, 모든 정보기관은 전 세계에 대한 소련의 의도와 계획을 파악할 것, 맥아더 사령부는 한국군에 대해 무기와 탄약을 지급하고,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철수시킬 것을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해군과 공군의 사용 등을 트루먼은 허가했다.⁹⁾ 이것은 유엔과 상관없이 미국 단독으로 이루어진 결정들이었다. 이날 결정이 사실상의 개입 결정이었다. 그 후 결정은 이날 결정의 연장선이었다.

한편 같은 일요일 저녁 유엔안보리(U.N. Security Council)는 북한은 즉각 도발을 중지하고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¹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소련은 참석하지 않았다. 소련의 불참 덕택에 미국의 의도대로 유엔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이 38선 이북으로 자진 철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트루먼은 판단했다.¹¹⁾

6월 26일 월요일이 되자 한국전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월요일 저녁 전날 블레어 하우스에 모였던 국방과 국무부 관련 고위관리들이 다시 모였다. 회의를 마친 트루먼은 국방장관에게 맥아더 지휘 하에 있는 공군과 해군을 사용하여 한국군을 도울 것을 지시했다. 작전지역을 38선 이남으로 제한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¹²⁾

6월 27일 유엔안보리는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유엔회원국들에게 한국을 돕도록 요청하는 유엔결의안을 통과시켰다.¹³⁾ 한국에서 미국이 군사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유엔의 법적 지원을 얻게 된 셈이었다. 같은 날

9)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69~70.

1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7: Korea, p.155.

11) Truman, *Memoirs*, pp.335~336.

12)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72~73.

1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7: Korea, p.211.

트루먼은 의회지도자들을 만나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¹⁴⁾ 다음날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를 다시 소집해 한반도 주변에 대한 소련의 움직임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요청했다. 한편 도쿄시간으로 6월 29일 맥아더는 한국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전투가 벌어지는 한국을 방문했다. 6월 29일 아침 국방장관 존슨은 대통령에게 전화로 한국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6월 29일 오후 회의에서 대통령은 공군과 해군의 작전지역을 38선 이북까지 확대하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¹⁵⁾

6월 30일 새벽 3시 국방부는 한국에 지상군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맥아더 보고서를 접수했다. 육군참모총장 콜린스는 육군장관 페이스에게 즉시 보고했다. 그 후 콜린스는 맥아더와 텔레콤 회의를 한 번 더 하고 페이스에게 전황이 급하다고 보고하자 페이스가 블레어 하우스에 있는 트루먼에게 전화를 걸었다. 6월 30일 아침 트루먼 대통령은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과 회의를 갖고 맥아더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일본에 있는 2개 사단을 한국에 투입할 것과 북한에 대한 해안봉쇄를 명령하였다.¹⁶⁾ 마침내 미 지상군의 파견이 결정된 것이다. 결정과정에서 트루먼은 의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였다.

3. 참전 유엔군 지휘체계

미국은 형식상으로 유엔군의 일부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전투를

14) 대통령 특별보좌관 에버렐 해리만(Averell Harriman)은 트루먼에게 의회에서 한국 전쟁과 관련된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요구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국무장관 에치슨은 대통령의 군 통수권으로 군대 파견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결의안 요청에 반대했다. David McCullough, *Truman*(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2), p.789

15)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p.74~76.

16) Truman, *Memoirs*, p.343.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엔군 지휘부가 필요했다. 유엔사무총장 트리그브 리(Trygve Lie)는 미국정부가 한국에 참전하는 유엔군을 지휘할 것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대한 원조와 군사작전을 감독할 감독기관으로 한국원조조정위원회(A Committee on Coordination of Assistance for Korea)의 구성을 제안했다. 위원회의 구성은 미국을 비롯하여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인도,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을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다.¹⁷⁾ 그러나 트루먼은 리 사무총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대신 트루먼은 통합사령부의 설치를 제안했다. 7월 7일 유엔안보리는 결의안(resolution)의 형식으로 미국의 통합사령부(a unified command under the United States) 설치안을 통과시켰다.¹⁸⁾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군사력이나 기타 원조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는 유엔군사령부에 군대와 원조물자를 제공하면 되었다. 통합사령부를 지휘할 사령관은 미국이 임명할 수 있도록 일임했다. 그런데 유엔군 활동과 유엔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미국이 한국에서 유엔군사령관이 취하는 군사행동에 대하여 유엔에 보고하는 정도가 전부였다.¹⁹⁾

전쟁과 관련된 유엔의 결정사항은 초기에는 안보리에서 결정하였으나, 1950년 8월 이후에는 총회에서 결정했다. 소련이 유엔에 복귀함으로써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총회에서 군사작전에 대한 결의안 형식으로 전쟁에 대한 정치적인 정책을 결정했다. 전략적인 군사작전에 대한 결정사항은 미국 합참에서 결정하는 형식을 취했다. 합참이 유엔결의안을 근거로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명령을 내리는 방식이었다.

7월 8일 트루먼은 한국전쟁을 지휘할 유엔군사령관에 맥아더를 임명했다.

17) Leland M. Goodrich, *Korea: A Study of U.S. Policy in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56), p.119.

18)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7: Korea, p.329.

19) *ibid.*

이어 트루먼은 해당 부처 사이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부처 간 협조 체제를 갖추도록 명령했다. 한국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치와 군사적인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7월 6일부터 국가안보회의는 매주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안은 모두 국가안보회의를 거치게 했다. 동시에 대통령 보좌관들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제안은 할 수 있게 하고, 제안된 안건은 국가안보회의를 통하여 의논하여 통과시키도록 했다. 한국전쟁을 지원하는 다른 원조 국가들과의 문제는 국무부와 국방부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했다.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합참 전쟁상황실에서 회의를 갖고 문제를 협의했다.²⁰⁾

한국전쟁과 관련된 군사작전은 보통 합참이 단독으로 결정했으나, 군사작전이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합참이 자신들이 제안하려는 내용을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장관이 국무장관과 협의하는 방식을 취했다. 거꾸로 국무부에서 만들어진 군사작전에 관련된 것은 국무장관이 국방장관과 의논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국무부와 국방부가 합의한 사항은 국방장관이 국가안보회의에 안건으로 제안하여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가안보회의에는 합참의장 브래들리가 참석하여 군 지휘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친 안건은 최종적으로 대통령 트루먼에게 제출되었다.

트루먼은 보통 국가안보회의를 통하여 중대사안을 결정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일상적인 군사문제는 국가안보회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본적인 전쟁관련 결정들은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 맥아더에 하달되는 명령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결재사항이었다.²¹⁾

트루먼은 전쟁의 작전내용까지 간섭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전쟁에 대한

20) Roy K. Flint, "The Tragic Flaw: MacArthur, the Joint Chiefs, and the Korean War", Duke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76, pp.90~99.

21) Truman, *Memoirs*, p.396.

보고를 받았다. 합참의장 브래들리가 아침마다 브리핑을 했다. 합참의장은 매일 아침 8시 45분에 한국에서 전날 벌어진 전투상황에 대하여 먼저 국방장관에게 브리핑을 했다. 그런 후 국방부에서 백악관으로 가서 9시 15분에 대통령에게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보고했다. 이런 과정에서 브래들리는 대통령에게 일상적 업무를 보고하거나 혹은 결재를 얻었다. 때로 국방장관이 직접 보고서를 들고 대통령에게 가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럴 경우는 매우 적었다. 이런 브리핑을 통하여 합참의장, 국방장관 그리고 대통령이 같은 내용의 전황을 공유할 수 있었다.²²⁾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낼 내용을 결재한 것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브래들리가 그 내용을 육군참모총장 콜린스에게 하달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콜린스는 합참의 작전실행 책임자였다. 그러나 육군참모총장이 유엔군사령관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합참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명령을 하달하는 형식을 취했다. 유엔군은 다국적군이었으나 미국의 명령체계 안에 배치되어 작전에 참여함으로써 전쟁 중 지휘 계통에 생기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엔군사령관이 전투와 관련된 모든 명령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지휘체계가 효과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²³⁾

도쿄에 있는 맥아더 사령부 아래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전쟁을 지휘하는 최고 지휘관은 미 8군사령관이었다.²⁴⁾ 미 8군사령관에게 한국에서 작전 중인 모든 미군의 작전지휘권이 부여되었다. 일본에 있던 미 8군이 한국으로 이동한 것은 7월 13일이었다.

미 8군이 한국으로 이동하자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역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했다. 7월 17일자 문서에서 이승만은 한국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의 모든 지휘권을 유엔군

22) Flint, "The Tragic Flaw", p.96.

23) 한국전쟁 중 군 지휘체계에 전반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Donald W. Boose, Jr. *US Army Forces in the Korean War 1950-53*(New York: Osprey Publishing, 2005), pp.58~60.

24) 첫 번째 미 8군사령관은 월튼 워커(Walton Walker) 중장이었다.

사령관에게 이양한다고 선언했다.²⁵⁾ 이로써 미 8군은 유엔군뿐 아니라 한국군도 모두 지휘하게 되었다. 그러나 워커 사령관은 미 8군 지휘 하에 유엔군과 한국군을 통합하는 대신 한국군 지휘체계를 존속시켰다.

미 8군사령부와 한국군 지휘체계가 병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 8군의 작전 명령은 미 군사고문단(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을 통하여 이루어졌다.²⁶⁾ 한국군에 파견된 미군 군사고문단은 한국군의 작전, 훈련, 연락, 감독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는 통제지휘체계를 만들었다. 미 8군사령부에서 작성한 모든 작전명령서는 미 8군 군사고문단을 통해 한국의 육군본부 군사고문단에게 하달되고, 육군본부 한국군 군사고문단 장교에게 하달된 명령서는 한국군 육군참모총장과 군사고문단장에게 보내졌다. 그러면 한국 육군참모총장은 영어와 한글로 번역된 명령서를 예하부대 지휘관에게 내려보냈다. 미 8군사령부 명령서를 접수한 예하부대 지휘관은 명령에 따라 작전을 실시했다. 이때 예하부대에 파견되어 있던 미군 군사고문관이 미 8군사령부의 작전명령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협조하고 조언하고 때로는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²⁷⁾ 고문관이 파견되는 부대의 규모는 전투부대의 경우는 연대급까지 그리고 포병과 공병, 통신 및 기타 특수부대의 경우에는 대대급까지였다. 군사고문단의 지휘계통은 미 8군사령관을 최고사령관으로 하고, 그 아래에 군사고문단장이 있고 다시 그 아래에 고문관이 있었다. 고문관은 고문단 소속 직속상관의 명령만 따르도록 조직되어 있었다.²⁸⁾ 군사고문단이 한국군과 미 8군 사이에서 양쪽 군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25)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102;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 제1집, 629쪽.

26) 군사고문단은 한국전쟁 전에도 있었다. 원래 1948년 8월 24일 임시군사고문단이 시작되었으나 공식적으로 출발한 것은 1949년 7월 1일부터였다. 박동찬, 「전쟁기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활동」,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473쪽.

27) 박동찬, 앞의 책, 486~487쪽.

28) 박동찬, 앞의 책, 487쪽.

4. 북진결정

한국에서의 초기 전쟁 상황은 북한군에 유리했다.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키고 이어서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진격을 계속했다. 남진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군은 스미스부대 그리고 이어 일본에 있던 미 제24사단을 전선에 투입했으나, 쇄도하는 북한군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였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을 의지하여 북한군을 저지할 최후의 방어선을 마련했다. 낙동강 전선의 동부는 한국군이 그리고 서부는 미군이 담당했다.²⁹⁾ 전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극적 작전이 필요했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는 개전 초부터 인천상륙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³⁰⁾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의 승인을 합참에 요청하자 합참은 반대했다.³¹⁾ 인천의 조수간만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시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열악했다. 1950년 8월 21일 육군참모총장 콜린스와 해군작전사령관 셔먼 제독이 인천상륙작전을 취소시키기 위하여 도쿄로 날아갔다. 그러나 맥아더의 능란한 화술과 작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워싱턴 수뇌부는 오히려 설득을 당했다.³²⁾ 트루먼은 합참을 통하여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최종적으로 작전을 승인했다.³³⁾ 워싱턴 군 수뇌부가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루먼 역시 반대할

29) 낙동강 방어선은 총 240km(남북으로 150km, 동서로 90km)였다. 이 중 한국군이 128km, 미군이 112km를 담당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낙동강선 방어작전』, 2008, 3쪽.

30) Douglas MacArthur, *Reminiscences*(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4), p.333.

31) *ibid.*, p.346.

32) 콜린스는 인천 대신 군산을 상륙지점으로 제시했다. J. Lawton Collins, *War in Peacetime: The History and Lessons of Korea*(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69), pp.121~126.

33) Dean Acheson, *Present at Creation: My Years in the State Department*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1969), p.448. 트루먼은 합참뿐 아니라, 1950년 8월 4일 도쿄로 맥아더를 만나러 갔던 해리만을 통하여 인천상륙작전계획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해리만은 인천상륙작전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McCullough, *Truman*, p.795.

수 있었으나 국내에서 중간선거가 진행 중이라 트루먼 역시 극적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맥아더의 판단을 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은 전쟁 상황을 일거에 바꾸었다.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던 한국군과 미 8군도 북진을 시작했다.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유엔군은 38선을 향하여 북진을 계속했다. 그런데 북진과 관련하여 유엔군에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38선을 넘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목적은 남침한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격퇴하고 한반도의 상태를 원상 복구시키는 것이었다.³⁴⁾ 그런데 인천상륙작전이 논의되던 비슷한 시기에 38선 돌파에 대한 논의가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이후 전쟁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와 결부하여 합참은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군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38선 이북에 대한 군사작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맥아더 역시 38선 이북에 대한 군사작전을 주장했다. 한국 대통령 이승만은 38선에서 멈추지 않고 북진할 것을 공언했다.³⁵⁾

그러나 38선 이북으로 진격하는 문제와 결부하여 가장 걱정스런 문제는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소련이나 중국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중국과 소련 국경으로 북진할 경우 두 나라의 참전 가능성이 있었다. 수차례의 논의 끝에 38선 이북으로 북진을 단행하되 중국과 소련의 참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38선 이북지역의 전투에는 한국군을 주력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³⁶⁾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참전

34) 블레어 하우스 회의에 참여하였던 조지 케난(George Kennan)에 따르면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워싱턴 관리들 중 누구도 한국의 통일까지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George F. Kennan, *Memoirs 1925~1950*(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67), p.487.

35) 케난에 따르면 38선 이북으로 진격할 것을 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이미 1950년 8월 중순부터 미국 유엔대사 워렌 오스틴(Warren Austin)은 “한국 반쪽을 노예 상태”로 남겨놓은 채 한국을 떠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ibid.*, pp.488~489.

3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7: Korea*, pp.713~721.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만 미군도 북진한다는 조건을 붙였다.³⁷⁾ 트루먼 대통령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기 이전에 이미 북진정책이 결정되었다.³⁸⁾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눈부신 성공을 거둔 후 소련이나 중국의 직접적인 개입의 징후가 없자, 9월 27일 38선 이북으로 북진하라는 트루먼 대통령의 명령이 맥아더에게 하달되었다.³⁹⁾

1950년 10월 초 유엔군은 파죽지세로 38선을 넘었다. 한국군은 10월 1일 유엔군보다 1주일 먼저 38선을 넘어 진격을 시작했다. 그런데 38선 이북의 전투를 한국군에게 일임하기에는 한국군의 전투능력이 부족했다. 전투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군이 주력군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북진은 두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인천상륙작전을 담당하였던 미 제7사단과 미 제1해병사단이 10군단을 구성하여 원산으로 상륙해 동부전선을 맡았다. 10군단은 원산에서 중국 국경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부산방면에서 북진해 올라온 미 8군은 서부전선을 책임지며 압록강 방면으로 진격해 올라갔다.⁴⁰⁾

5. 중국군의 개입과 확장문제

유엔군이 북진하자 중국의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1950년 10월 3일 중국 외무부장 주언라이(Chou En-Lai)가 중국 주재 인도대사인 패니카

37) *ibid.*

38) 트루먼이 북진문제를 국가안보회의에 연구를 지시한 것은 이미 7월 17일이었다. 그리고 북진을 결정한 NSC 81에 트루먼이 사인한 날자는 9월 11일이었다. William Stueck, *Rethinking the Korean War: A New Diplomatic and Strategic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pp.88~89.

39) *ibid.*

40) 미군병력을 돌로 나눈 진격작전은 맥아더의 실책이었다. David Halberstam, *The Coldest Winter: America and the Korean War*(New York: Hyperion, 2007), p.312.

(K.M. Panikkar)를 외무부로 불러 미군이 38선을 넘으면 중국이 참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⁴¹⁾ 이런 중국의 경고에 대하여 미국은 경고를 전적으로 무시할 마음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액면 그대로 수용할 마음도 없었다.⁴²⁾

중국에서 경고사인이 나오자 트루먼 대통령은 주춤했다.⁴³⁾ 전쟁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가장 큰 이유는 3차 세계대전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전쟁 자체가 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도화선이 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북진은 하되 중국이나 소련을 전쟁관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정책결정의 기준이었다.

거기다 1950년 가을 미국에서는 대통령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중간선거 운동이 한창이었다. 전쟁이 확산되거나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국내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또한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한 이후 트루먼 정부의 인기는 하락하고 있었다.⁴⁴⁾ 특히 중국 공산화를 놓고 야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이 “중국을 잃었다(lost China)”며 대대적인 정치 공세를 펼쳤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꿈꾸고 있던 하롤드 스타센(Harold E. Stassen)은 트루먼을 “최악의 대통령”이자 백악관을 차지했던 “가장 교활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⁴⁵⁾ 1950년 초부터 위스콘신 상원의원 조셉 매카시(Joseph McCarthy)는 트루먼 행정부에 공산주의자가 많으며 국무장관 애치슨을 포함한 트루먼 행정부의 핵심관리들까지 공격하기 시작했다. 매카시의 주장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

41) Acheson, *Present at Creation*, p.452.

42) *ibid.*

43) 거기다 10월 20일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CIA)은 중국군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트루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Truman, *Memoirs*, p.372.

44) 갤럽여론조사(Gallup Poll)에 따르면 1949년 1월 트루먼의 지도력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는 69퍼센트였으나, 1950년 1월에는 그 지지도가 45퍼센트로 하락했고, 1950년 6월에는 37퍼센트로 추락했다. Glenn D. Paige, *The Korean Decision, June 24-30, 1950*(New York: Free Press, 1968), p.45 재인용.

45) *ibid.*, p.44 재인용.

널리 퍼지고 있었다.⁴⁶⁾

트루먼은 맥아더로부터 직접 전쟁 상황을 듣고 싶었다. 1950년 10월 중순 트루먼은 워싱턴에서 하와이를 거쳐 웨이크 섬(Wake Island)으로 날아갔다.⁴⁷⁾ 회담에서 트루먼은 맥아더로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트루먼이 가장 걱정하고 있던 중국의 참전 가능성에 대해 맥아더는 한마디로 중국 참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했다.⁴⁸⁾ 중국은 한국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군사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군이 참전한다면 그들은 “최대의 살육전(the greatest slaughter)”을 당할 것이라며 승전을 장담했다.⁴⁹⁾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트루먼의 민주당은 승리하지 못했다. 하원에서 28석을 공화당에게 잃었고 상원에서는 5석을 잃었다. 민주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간신히 지켰으나 공화당과 의석수의 차이는 많이 줄었다. 민주당은 이제 하원에서 36석을 그리고 상원에서 겨우 2석을 더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 되었다.⁵⁰⁾

11월 말 트루먼은 중국의 국경까지 총공격한다는 맥아더의 전황보고를 받았다. 크리스마스까지 전쟁을 끝낸다는 계획의 실천이었다. 트루먼은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복진하던 유엔군이 대대적으로 중국군과 충돌하였다는 청천벽력 같은 보고를 받았다.⁵¹⁾ 피하고자 노력하던 최악의 사태가 현실이 된 것이다.

중국군의 참전으로 한국전쟁의 상황은 유엔군에 절대적으로 불리해졌다.

46) 매카시의 주장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매카시 주장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한 사람은 14퍼센트에 불과했고, 들어 보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매카시의 주장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사람이 39퍼센트이고, 국가에 해가 된다고 답한 사람이 29퍼센트였다. 나머지 16퍼센트는 모른다고 답했다. *ibid.*, p.46.

47) 트루먼이 웨이크 섬까지 갔던 배경에는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측면도 있었다. *McCullough, Truman*, p.800.

48) *Truman, Memoirs*, p.366.

49) *ibid.*

50) http://www.conservapedia.com/1950_Midterm_Elections

51) 11월 28일 맥아더는 중국군의 참전으로 “완전히 새로운 전쟁(an entirely new war)”의 국면을 맞이했다고 합참에 보고했다. *Collins, War in Peacetime*, p.220.

1951년 1월 유엔군이 서울을 적에게 넘겨주고 다시 서울 남쪽으로 밀려났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는 중국 본토에 대한 폭격을 주장했다. 거기다 타이완에 있는 국민당 정부의 군대를 한국전쟁에 투입할 것을 제의했다.⁵²⁾

트루먼은 한국전쟁에 대한 결단이 필요했다. 위협을 무릅쓰고 중국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강한 반격이 뒤따를 것이고 소련의 참전도 가능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다. 한국전쟁이 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원래 미군의 참전이유였다. 그렇다면 확전은 피해야 했다.

6. 맥아더 해임과 휴전결정

트루먼은 한국전쟁의 확전을 반대했다. 그러나 맥아더는 대통령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다. 1951년 3월 24일 맥아더는 자신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맥아더는 중국군이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국에 국한하여 전투를 한다는 결정을 취소하고 군사작전의 범위를 중국 내륙에 있는 군사기지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³⁾ 트루먼은 충격을 받았다.⁵⁴⁾

맥아더의 행동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야당인 공화당 하원의원 조셉 마틴(Joseph Martin)에게 확전 주장을 편지로 적어 보냈다.

52) MacArthur, *Reminiscences*, pp.384~385

53) Truman, *Memoirs*, pp.440~441.

54) 맥아더의 주장에 대한 당시 심경을 트루먼은 그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이자 군통수권자인 내 명령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그것은 또한 유엔군의 정책을 모욕하는 것이다.” *ibid.*, p.442.

4월 5일 마틴은 맥아더가 보내 온 편지를 하원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낭독했다.⁵⁵⁾ 마틴은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였다. 맥아더의 편지는 민주당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맥아더의 행동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공개적인 항명(insubordination)이었다.⁵⁶⁾

1951년 4월 6일 트루먼은 국무장관 애치슨, 국방장관 마셜, 합참의장 브래들리 그리고 해리먼 보좌관을 집무실로 불러 맥아더 문제를 논의했다. 1시간이 넘게 논의한 결과 맥아더 문제는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사안이라는데 점에 합의했다. 해리먼은 이미 2년 전인 1949년 귀국하여 보고하라는 워싱턴의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해임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⁵⁷⁾ 회의에 참석한 국방장관 마셜이나 합참의장 브래들리도 모두 해임 조치를 건의했다. 브래들리는 맥아더 문제를 군기강의 문제로 접근했다. 그는 맥아더는 대통령의 명령을 어긴 항명사건으로 마땅히 해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브래들리는 합참과 의논하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장관 애치슨 역시 합참의 의견을 들어 본 후 결정하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결론이 나기까지 참석자들은 합구하기로 했다.

4월 7일 토요일 아침 트루먼은 맥아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였다. 앞에서 모였던 관계자들이 다시 모였다. 이때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던 국방장관 마셜조차 맥아더는 이미 2년 전에 해임되었어야 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론이 나자 회의는 짧게 끝났다. 트루먼은 합참이 맥아더 해임에 대한 건의서를 내고 그에 따라 해임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지시했다.⁵⁸⁾

1951년 4월 11일 트루먼은 맥아더를 전격적으로 해임했다. 후임에는 미 8군사령관을 하던 매튜 리지웨이(Matthew Ridgway)가 임명되었다.

55) Acheson, *Present at Creation*, p.520.

56) Truman, *Memoirs*, p.442.

57) *ibid.*, p.447.

58) *ibid.*

예상한 바와 같이 맥아더 해임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일반 국민들에게 맥아더는 전쟁영웅이었다. 의회에서는 맥아더 해임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통령 트루먼은 흔들리지 않았다. 트루먼은 휴전을 선택했다.⁵⁹⁾ 5월 말 국무부가 조지 케난(George Kennan)을 통해 휴전 회담에 대한 뜻이 있음을 소련 유엔 대사 야콥 말리크(Jacob Malik)에게 전달하자, 6월 23일 말리크 대사는 유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휴전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발언을 했다.⁶⁰⁾ 테네시 주를 방문 중이던 트루먼도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연설로 답변함으로써 일단 미국과 소련 사이에 협상에 대한 의지가 확인될 수 있었다. 6월 30일 유엔군사령관 리지웨이 방송을 통해 중국측에 정전협상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⁶¹⁾ 이에 7월 1일 중국이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7월 10일 휴전회담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트루먼은 휴전회담에 처음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관여했다. 그의 회고록을 보면 트루먼은 협상문의 자구와 같은 아주 작은 문제까지 일일이 보고받았고, 또한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⁶²⁾ 특히 포로 중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문제는 트루먼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다.⁶³⁾ 1951년 가을 미국 내에서 매카시즘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자유를 원하는 송환거부 포로들을 적에게 넘겨준다면 트루먼의 정치생명이 위협할 수 있었다.

거기다 195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⁶⁴⁾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다.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큰 진전이 없었다. 특히 포로송환 문제는 접촉점을 찾을 수 없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트루먼의 인기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트루먼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59) *ibid.*, p.456.

60) Acheson, *Present at Creation*, p.533.

61) *ibid.*, p.534.

62) Truman, *Memoirs.*, p.459.

63) *ibid.*, p.460.

64)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국전쟁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김남균,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국전쟁」, 『미국사연구』 20집, 2004, 141~165쪽.

것을 포기했다. 대신 일리노이주 지사 아들레이 스티븐슨(Adlai Stevenson)을 민주당 후보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⁶⁵⁾ 공화당에서는 2차 세계대전의 전쟁영웅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를 후보로 지명했다. 한국전쟁에 발목이 잡힌 민주당은 결국 대선에서 패배했다. 1953년 1월 트루먼은 쓸쓸한 퇴임을 맞이했다. 백악관을 나온 트루먼은 곧장 미주리 옛집으로 돌아갔다.

7. 맺음말

한국전쟁 중 트루먼의 전쟁지도는 참전결정으로 시작되었다.⁶⁶⁾ 그의 참전결정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참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방과 외교 관련 책임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였지만 트루먼은 전쟁발발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이미 참전을 결심했다. 세계대전을 경험한 대통령으로서 트루먼은 또 다른 세계대전은 막아야 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트루먼이 한국전쟁에 개입 결정을 하지 않고 북한의 남침을 묵인하였다면 남한정부는 생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적 신뢰도 역시 추락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미국은 국방력 강화의 절호의 찬스도 잃었을 것이다.⁶⁷⁾ 유럽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였을 것이고, 타이완과

65) 앞의 글, 152쪽.

66) 미국의 한국전쟁 참전에 관련된 최종 결정들이 핵심적으로 누구의 결정이었나 하는 것에 대하여 트루먼 전기를 쓴 저명한 외교사학자 로버트 페렐(Robert H. Ferrell)은 “그 결정들은 대통령의 결정들이었다(The decisions were those of the president).”고 단정한다. Robert H. Ferrell, *Harry S. Truman and the Modern American Presidency*(Boston: Little Brown, 1983), p.112.

67)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0년 9월 트루먼은 NSC 68을 승인했다. 미국은 군비증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거대한 군사대국이 되었다. 한국전쟁이 터진 1950년 국방예산은 13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전쟁이 발발한 후 500억 달러로 국방비가 치솟았다. 또한 미국의 세계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경제원조가 모두 군사원조로 전환되었다. 일본

일본을 포함하여 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되었을 가능성이 컸다.⁶⁸⁾ 트루먼 개입결정은 남한을 구했고, 미국을 구했고 그리고 세계를 구한 선택이었다.

한국전쟁 개입 방식도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으로 참전하지 않고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것도 탁월한 선택이었다. 공산권의 도발에 대하여 자유진영이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자유진영을 단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고 한국전쟁이 단순한 한국의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임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전쟁은 처음부터 소련이 개입하여 결정된 명백한 국제전이였다.⁶⁹⁾ 여기에 트루먼이 적절하게 대응한 것이다.

그러나 트루먼의 한국전쟁에 대한 결정이 모두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트루먼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 이승만 정부의 군사원조 요청에 소극적이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낮다고 오판한 탓이었다. 트루먼을 비롯한 미국 지도자들은 유럽을 중시하고, 대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저평가하였던 것이다.⁷⁰⁾ 한국을 애치슨 라인

에 대한 군사력 보유 금지정책도 풀려 일본의 재무장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냉전역사의 대표적 역사학자인 존 가디스(John L. Gaddis)는 한국전쟁은 미국이 군비를 증강하는 극적 전환점이었다고 단정한다. John L. Gaddis, "Was the Truman Doctrine A Real Turning Point?" *Foreign Affairs* 52(January 1974), p.402.

- 68)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였을 결과에 대한 추측은 역사적 가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오랫동안 연구한 대표적인 한국전쟁 연구자의 한 사람인 윌리엄 스투크(William Stueck)의 연구에 따르면 "김일성의 속전속결 계획을 좌절시킨 미국의 참전은 1950년 6월 이후부터 적어도 7개월 동안 소련의 유고슬라비아 공격을 분명히 좌절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남침과 서방의 확고한 반격이 없었다면 소련 지도자는 고집 센 티토를 전복할 군사행동을 감행했을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국제정세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William Stueck, *The Korean War: An International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김형인·김남균·조성규·김재민 옮김, 『한국전쟁의 국제사』, 서울: 푸른역사, 2001, 693쪽.
- 69) 한국전쟁이 내전이냐 국제전이냐 하는 것은 오래된 논쟁이다. 그에 대한 논쟁의 전개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참조: 김남균, 「미국 역사가들과 한국전쟁」, 139~147쪽. 그리고 한국전쟁이 내전이 아니라 국제전인 이유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다음 자료 참조: Stueck, *Rethinking the Korean War*, p.65.
- 70)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문제가 논의되던 1947년 4월 미국 합동전략조사위원회(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는 미국의 안보이익에 핵심적인 16개 국가 중에서

(Acheson Line) 밖에 설정한 것이 그 단적인 예였다.⁷¹⁾ 만약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의지를 확실히 하였다면 한국전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⁷²⁾ 한국전쟁을 방지하지 못한 것은 트루먼 행정부의 절대적 실책이었다.

한국전쟁 지도와 관련하여 미군이 중심이 된 유엔군 통합지휘부를 설치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나 북진결정에는 문제가 있었다.⁷³⁾ 중국이나 소련이 참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북진을 결정하였으나 최종적인 판단을 야전사령관에게 일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트루먼은 중국의 참전을 방지하지 못했다. 중국의 참전 가능성에 대한 맥아더의 잘못된 정세분석이 오판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나, 그렇다고 군통수권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⁷⁴⁾

트루먼의 실책에는 제도적인 문제도 작용하였다. 원칙적으로 전쟁지도는 대통령에서 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에서 야전사령관으로 내려가는 명령체계를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처음부터 야전사령관인 맥아더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명령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한국전쟁 참전 초부터 군사작전에 대한 실질적인 이니셔티브를 야전사령관 맥아더가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⁷⁵⁾ 인천상륙작전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맥아더의

한국을 15번째 자리에 올려놓았다.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7*, Vol.6, pp.737~738.

71) U.S.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22(23 January 1950), pp.111~116.

72) 애치슨 라인이 공산 측의 남침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는 남침결정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결정되었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된다. 남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스탈린에 의하여 내려졌으며, 그 결정의 시기는 애치슨 라인이 발표된 이후라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역사적 사실이다. 김형인·김남균·조성규·김재민 옮김, 『한국전쟁의 국제사』, 68쪽.

73) Ferrell, *Harry S. Truman and the Modern American Presidency*, p.124.

74) 트루먼은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는 명패를 놓고 있었다.

75) 6월 25일 한국전 발발 소식을 들은 맥아더는 주한미국대사 존 무초(John Muccio)의 요청에 따라 워싱턴의 지시도 있기 전에 일본에 있던 미 8군사령관 워커에게 한국군에 대한 탄약지원을 명령했다.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p.66.

위세는 상위 기관인 합참을 능가했다. 거기다 인천상륙작전이 크게 성공하였기 때문에 미군 수뇌부의 명령체계는 더욱 엉망이 되었다. 맥아더 개인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맥아더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통제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 대통령조차 웨이크 섬까지 가서 야전사령관을 만남으로써 야전사령관의 위상을 필요 이상으로 높여주었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동이 군사문제와 혼합되면서 만들어진 실책이었다.

실책의 대가는 트루먼 개인에게도 정치적으로 치명적이었다. 트루먼의 정치적 인기는 급락하였다. 그 결과 트루먼은 195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조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단기적으로 볼 때 트루먼은 한국전쟁에서 실패한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그의 개입결정 덕분에 남한의 자유가 지켜졌고, 미국의 국방력이 강화되었으며, 유럽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더 큰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한국전쟁 지도는 전체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옳을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에 불법 개입한 중국에 대하여 전면전을 택하는 대신 휴전을 택함으로써 인류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엄청난 비극을 방지하였다는 것은 절대로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트루먼의 역사적 업적이다.⁷⁶⁾ 결론적으로 트루먼은 한국전쟁에 전격 개입함으로써 그리고 중국 본토에 대한 확전에 단호하게 반대함으로써 제3차 세계대전을 방지한 대통령이었다.⁷⁷⁾

(원고투고일 : 2013.4.1, 심사수정일 : 2013.5.14, 게재확정일 : 2013.5.22)

주제어 : 해리 트루먼 대통령, 미국 대통령, 미국 군통수권자, 한국전쟁(6·25전쟁), 미국의 참전 결정, 중국군의 참전, 더글러스 맥아더, 제3차 세계대전

76) 김남균, 앞의 책, 152쪽.

77) 트루먼 전기를 쓴 외교사학자 페럴(Robert H. Ferrell)에 따르면 트루먼에게는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단력(his ability to conclude, to decide)”이 있으면서 동시에 “필요하면 결정을 거부(if necessary he refused to make a decision)”할 수 있는 성격적 특징이 있었다. 페럴의 지적과 같이 트루먼의 이런 성격적 특징이 전격적으로 한국전쟁 개입을 결정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확전 결정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Ferrell, *Harry S. Truman and the Modern American Presidency*, pp.181~182.

<ABSTRACT>

President Truman's Direction of the Korean War: Avoiding a Third World War

Kim, Nam-gyun

How can we evaluate the presidency of Harry S. Truman during the Korean War? President Truman decided to intervene in the Korean War immediately after receiving reports about the outbreak of war on the peninsula. In his eyes, the invasion launched by North Korea was not an isolated event but a part of the Communists' grand scheme to conquer the world. It was his belief that inability on his part to sever the spread of Communism at its incipient stages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lead to worldwide catastrophe, possibly another world war much akin to the second.

Thanks to his prompt decision, not only was the Republic of Korea saved from being absorbed into the Communist block, but a probable war in Europe was aborted.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was able to strengthen its military during the war. The American defense budget grew to 500 billion dollars during the Korean War and has steadily increased since.

However, the Korean War did not end as readily as President Truman had hoped. When the United States forces unexpectedly faced massive military forces of the Communist China, General Douglas MacArthur insisted that the United States bomb China's northern territories with conventional weapons and even nuclear bombs, if necessary. Truman was appalled and opposed to MacArthur's suggestion, which eventually led to MacArthur's removal from office. The Korean War dragged on, diminishing Truman's political career with it. He was unable, even, to initiate his plans to run for the top office during the 1952 election.

In the short term, Truman seemed an unsuccessful president due to his mismanagement of the Korean War. Conclusively, however, he should be reevaluated on the grounds of two crucial decisions he made during the war: to intervene in the early stages of the war and not to expand the war into the Chinese territories after the Chinese Communists intervened. These two decisions allowed the world to avoid another world war, which was on the verge of breaking out, largely thanks to Truman's prudent decisions.

Key Words : Harry S. Truman, American President, Korean War, American intervention, Chinese intervention, Douglas MacArthur, Chinese Communists, Third World War